

광주·전남 체육 꿈나무들, 선의의 경쟁 펼친다

제54회 전국소년체전 24일 개막

김해 등 경남 일원서 나흘간 열전
광주 1045명… 66개 메달 목표
전남 1229명… 94개 메달 예상



광주·전남 체육 꿈
나무들이 제54회 전
국소년체육대회에
출전해 선의의 경쟁
을 펼친다. 꿈나무들

은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최대한 발휘
해 한국 스포츠스타를 향한 무대로 삼겠
다는 각오다.

체육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54회 전국
소년체육대회가 '경남과 함께 뛰는 대한
민국' 구호 아래 24일부터 27일까지 4일
간 경남 일원에서 열린다.

이번 소년체전에는 육상 등 36개 종목
에 광주시·전남도를 비롯해 전국 17개
시·도에서 1만8000명의 선수단(선수 1
만2000·임원 6000명)이 참가한다.

이번 소년체전에도 별도의 개·폐회식
을 열지 않는다. 사전경기로 지난 17~18
일 육상 종목이 치러졌다.

이번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광주·전남
선수단은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
미래 한국 스포츠스타의 꿈을 이루기 위
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는 각오다.

광주 선수단은 카누, 요트, 철인3종을
제외한 33개 종목에 1045명(선수 630·
임원 415명)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 17
개, 은 17개, 동 32개 등 총 66개의 메달을
노린다.

광주는 사전경기로 진행된 육상 종목에
서 강요한(광주체중 3)이 남자15세이하
부(이하남U15) 멀리뛰기 은메달과 세단
뛰기 동메달을, 홍석민(빛고을초 6)이
200m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.

24일부터 열리는 본 경기에선 근대3종
여U15 개인전의 이루리(광주체중 3)와
레슬링 남U15 자유형 92kg급 최지원(광
주체중 3), 에어로빅합합 남U15 개인전
의이태민(에어로빅합합전문스포츠
클럽)이 대회 2연패를 노린다.

송채연(광주체중 3)은 기계체조 여U
15 개인종합·이단평행봉에서 2관왕을 바
라본다.

강세 종목인 레슬링 남U15 자유형 80
kg급의 김수형(광주체중 3)과 태권도 남
U12 54kg급 허단(일동초)이 각각 금메

달에 도전한다.

복싱 남U15 핀급의 이창욱(광주체중)
과 씨름 남U15 역사급의 박유찬(화정남
초), 조정 남U15 더블스컬의 김준영·구
시온(광주체중)도 금빛 선전을 기대하고
있다.

단체전에서는 소프트테니스 여U15에
출전하는 신광중과 탁구 남U12에 출전하
는 송정초가 우승 사냥에 나선다. 또 야구
명문 수창초와 핸드볼 조대여중도 메달
획득을 노린다.

이색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. 박종규 광
주시당구연맹 회장의 장녀 박연정(조봉
초 5)이 바둑 여U12에 출전한다. 양궁의
삼형제인 조유준·조담준(삼정초 6)·조여
준(광주체중 2)과 배구 삼남매 김진아
(광주체중 3)·김진성(문흥중 1)·김진서
(문정초 5)가 가족의 힘을 과시할 예정이
다.

광주광역시체육회는 소년체전 참가를
앞두고 지난 3~4월 올해 처음으로 예선대
회를 주관해 개최했다. 엘리트체육 전문
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표선수
를 선발해 호평받았다. 또 이번 소년체전
에서 개인 체급종목과 기록종목에서 전력
향상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메달 수가 늘

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.

전갑수 광주체육회장은 “우리 꿈나무
선수들은 광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선
수”라며 “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
는 순간을 기대하며, 결과도 중요하지만
과정 속에서 배운 도전과 성장의 경험이
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것”이라고 격
려했다.

전라남도 선수단은 철인3종을 제외한
35개 종목에 1229명(선수 748·임원
481명)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 18개, 은
13개, 동 63개 등 총 94개 메달 획득을 목
표로 한다.

전남은 사전경기로 열린 육상 여U15
멀리뛰기에서 이하은(광양백운중 3)이
첫 금메달을 획득, 대회 2연패를 달성했
다. 이하은은 세단뛰기 동메달을 추가했
다.

김태빈(목포하당중 3)은 여U15 포환
던지기과 원반던지기에서 각각 금메달을
차지, 2관왕에 올랐다.

윤찬영(전남체중 3)은 남U15 400m
은메달을 수확했다.

본 경기에서는 전통 강세종목인 레슬
링, 태권도, 역도, 수영, 자전기 등에서 상
위 입상을 기대하고 있다.

역도 120kg급의박건민(완도중)이 3관
왕에 도전하고, 수영 자유형 50m·100m
의 김루아(한려초)와 평영 50m·100m
의 문승유(영암초)는 각각 2관왕을 바라
본다.

볼링 개인전의 김강민(목포제일중)과
레슬링 자유형 71kg의 김정민(전남체
중),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92kg의 심석무
(함평중), 한국바둑중의 바둑 남·여단체
전, 복싱 웰터급의 손지후(나주 금천중),
씨름 경장급의 조서후(이수중), 씨름 청
장급의 김태산(관산초), 태권도 -45kg의
정형민(구봉중) 등이 금메달 기대주로 꼽
힌다.

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“공부와 운동을
병행하며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치기 위
해 열심히 땀 흘린만큼 그동안 같고닮은
실력을 마음껏 펼쳐 후회없는 경기를 할
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
다”며 “어린 학생선수들이다보니 변수가
많지만, 전남체육의 꿈나무들이 선전하여
도민과 체육인들의 위상 제고에 크게 일
조했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

최동환 기자 cdstone@jnilbo.com

축구협회 “광주FC 징계 관련 FIFA와 계속 소통”

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프로
축구 광주FC의 연대기여금 미납 징계 사
태와 관련 (클리어링하우스)제도가 도입
된 지 얼마 되지 않아 ‘징착 과정’에 있다
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축구연맹(FIFA)
과 계속 소통하며 해결하겠다고 입장을
밝혔다.

김 전무이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
회관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
“FIFA 클리어링하우스 제도가 만들어진
지 몇 년 안 됐다.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
면,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정착
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”고 말했다.

연대기여금은 선수 영입 시 발생한 이
적료 일부를 선수가 12~23세 사이에 소속
됐던 구단에 일부 분배하는 제도로 FIFA
에 연대기여금을 송금하면 FIFA가 배분
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

과거 연대기여금을 구단이 상대 구단에
직접 지급했지만, 미지급 분쟁이 자주 발
생하자 FIFA가 영입 구단으로부터 연대
기여금을 받아 배분하는 방식으로 최근
바뀌었다.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
FIFA 클리어링하우스다.

김 전무이사는 “FIFA, 아시아축구연

맹(AFC)과 소통하겠다. 문제점을 정확
하게 파악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논의
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
들려고 노력 중이다”고 말했다.

앞서 광주는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
연대기여금 3000달러(약 420만원)를 송
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
17일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.
광주는 징계에도 이번 시즌을 앞두고 10
명의 선수들을 영입해 등록했고 이미 경
기에 출전시키면서 징계를 어긴 것이 됐
다.

이와 관련해 선수 등록 업무의 주체인
대한축구협회 측은 국내 징계만큼은 선을
그어줬다. 연대기여금을 미납한 것을 두
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경기 결과를 인
정해 리그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
다. 또 FIFA와 AFC를 함께 설득해줄 의
사도 덧붙였다.

김 전무는 “미숙한 부분을 인지했다”면
서도 “리그 운영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고
민을 많이 했다.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
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헛되게 하는 부분
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”고 설명했다.
민원기 기자·연합뉴스

호남대 김민규, 보디빌딩 WNGP AGE 루키 체급 우승

호남대 김민규(축구학과 2년·사진)가
지난 3일 남부대학교에서 열린 WNGP
(World Natural Grand Prix) 보디빌
딩 대회에 첫 출전해 AGE 루키 체급 1위
를 차지했다.

김민규는 축구 전공생으로서 체력 훈련
과 체형 관리에 대한 학과 수업을 바탕으
로 꾸준한 개인 운동을 이어왔으며, 대회
준비를 위해 1년간 체중을 24kg 감량하는
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.

김민규는 “축구학과에서 배운 체력 관
리와 훈련 이론이 큰 도움이 됐다”며 “이
번 성과를 계기로 앞으로도 도전을 멈추
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



장재훈 호남대 축구
학과장은 “김민규 학생
이 전공을 뛰어넘어 자
신의 가능성을 증명한
것을 매우 자랑스럽게
생각한다”며 “학과차원
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할
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
다”고 밝혔다.

호남대 축구학과는 전문적인 축구 교육
뿐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과
자기계발을 통해 잠재력을 확장할 수 있
도록 폭넓은 진로 지원과 체력 증진 프로
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
최동환 기자

AI페퍼스 합류한 고예림 “우승이 목표”… 적응 이상 무



2024~2025 V리그 시즌 종료 후 열린 자유계약선수(FA) 시장에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에 합류한 고예림이 21일 광주 페퍼스타
디움(영주종합체육관)에서 인터뷰를 가진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.

FA서 아웃사이드 히터 영입 “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”



V-리그 2025~2026 시
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
수(FA)로 페퍼저축은행
AI 페퍼스에 입단한 베테
랑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(30)이 “팀 우
승에 기여하겠다”는 포부를 밝혔다.

고예림은 21일 광주광역시 페퍼스타디
움(영주종합체육관)에서 열린 기자간담
회에서 “과거 신인 시절 장소연 감독님과
같이 선수생활 할 때 배구에 대한 생각이
잘 맞다고 생각했고 그런 열정도 좋아
했었는데 감독님이 되시고 나서 더 열정
이 많아진 것 같았다”면서 “나를 제일 필
요로 하는 팀에 오고 싶었는데 장 감독님
이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이 팀을 선택
했다”고 이적 배경을 밝혔다.

두 사람의 인연은 2013~2016년 도로공
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. 장 감독은 과
거 2011~2012 KGC인삼공사(전 정광

장)의 챔피언결정전 우승 이후 은퇴했다
가 2013~2014시즌 도로공사로 다시 현
역 복귀를 했다.

당시 고예림이 신인으로 도로공사에 들
어왔고 2015~2016시즌까지 세 시즌을
함께 선수로 함께 뛰었다.

고예림은 지난 시즌 페퍼스는 리그 최
하위였지만, 어린 선수들이 경험을 쌓으
며 무너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다고
평가했다.

그는 “어린 선수들이 많았던 과거에는
팀의 기복이 심했던 반면 지난 시즌을 보
면 팀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느낌을
받았다”며 “공·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선
수로 팀에 기여하고 싶다”고 다짐했다.

특히 고예림은 지난해 양 무릎 수술 이
후 재활을 마치고 최근 완벽한 몸 상태를
회복했다.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자
신감을 내비쳤다.

그는 “리시브나 수비는 물론, 공격에서
도 리듬을 찾는 상태”라며 “체력 훈련도
소화할 만큼 준비돼 있다”고 말했다.

지난 19일 페퍼스 훈련에 합류한 그는
빠른 적응을 보이고 있다.

국가대표 시절 함께 땀 박정아, 이한
비, 학창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한다혜 등
기존 선수들과의 친분도 도움이 됐다.

장 감독은 엄마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
아직 ‘감독님’이라는 호칭이 입에 붙지 않
아 아직도 ‘장쌤’이라는 애칭이 튀어나오
기도 한다. 등산 훈련 중 장 감독과 함께
뛰며 “묘한 기분이 들었다”고도 했다.

고예림은 우승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
있다. 그는 “매 시즌 나이나 이듬값보다
경기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맞다”며 “새로
운 팀에서 뛰게 됐으니 더 많은 응원을 부
탁드린다. 기대에 부응하겠다”고 말했다.

페퍼스는 이번 고예림 영입을 통해 젊
은 선수들 위주였던 전력에 경험과 안정
감을 더하게 됐다.

팀 리빌딩을 넘어 ‘플레이오프 진출’ 그
이상의 목표를 노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
수 있을지 주목된다.

글·사진=민원기 기자 hyunki.min@jnilbo.com